

概 觀

海南 大屯山은 經度 $126^{\circ}15' \sim 126^{\circ}43'$, 緯度 $34^{\circ}18' \sim 34^{\circ}45'$ 에 位置하며, 行政區域으로는 全羅南道 海南郡에 속하며 郡內의 현산면과 북평면의 境界를 짓고있는 해발 672m에 달하는 山이다.

大屯山은 韓半島의 西南端에 聳은 小白山脈의 末端 봉우리로서 山의 東北쪽에 있는 頭輪山(해발 703m)과 더불어 海南 突出部의 主軸이 되며, 바로 海岸에 連하고 있어 남으로 莞島와 마주 바라보고 있다.

이 地域의 氣候는 海洋의 影響을 많이 받는 海洋性氣候로서 年 平均氣溫이 14°C 이며, 추운 겨울철인 1月の 平均氣溫은 1°C 이고 무더운 여름철인 8月の 平均氣溫은 26°C 로 비교적 온난한 氣溫을 나타내며, 年 平均 降水量은 1,100~1,200mm에 이르고 있다.

大屯山은 丘암과 반암으로 形成된 기암이 絶벽을 이루고 있으며 깊은 골짜기는 平地가 거의 없는 좁은 계곡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대흥사 계곡을 흐르는 계류는 비교적 水量이 풍부하며 內陸쪽인 북으로 향하여 흐르다가 서쪽으로 꺾여 여러 지류와 合流되어 바다로 流入된다.

大屯山 北面 계곡에 자리잡고있는 大興寺는 원래 大屯寺라고 불려 오던 절로서, 우리나라 31本山 중의 하나인 고찰로 널리 이름이 나 있다. 대흥사는 지금으로 부터 1370여년 전 신라 진흥왕때 창건한 사찰로서 현재 이곳에는 서산대사의 유물을 비롯하여 李忠武公의 유적등 많은 史蹟이 남아있다.

이곳의 산림은 울창한 편이지만 이는 대흥사가 있는 골짜기에 국한하고 있으며 능선을 경계로 그 밖의 地域은 거의 황폐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봄철의 동백꽃, 여름철의 녹음과 시원하고 맑은 계류 그리고 가을철의 단풍등 계절에 따르는 景觀은 그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승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木浦나 光州등 인근 都市民에게는 더 없는 休息처로 各광을 받고 있다.

금번 海南 大屯山 一帶의 綜合學術調査는 나날이 황폐해가는 우리나라의 國土에서 아직 잔존하는 명승지를 개발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이지역이 적절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調査의 계획이 세워졌다. 調査의 內容은 大屯山의 立地的 條件을 淸查하여 구성되었으며, 우선 地形, 地質 및 環境을 구명하기 위한 自然地理班, 植物相을 究明하기 위한 植物班, 이곳에서 棲息하는 動物相을 파악하기 위하여 鳥類, 魚類 및 昆虫班, 그리고 이곳 植生의 變化를 구명하기 위한 生態班으로 調査團을 구성하였다.

概 觀

海南 大屯山 일대의 自然科學的 調査는 分野別 단편적인 調査가 있었을 뿐이며 이지역에 대한 綜合的인 調査는 아무런 報告도 된바 없어 이번의 광범위한 조사도 學術的으로, 그리고 이곳의 自然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못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調査된 結果를 概觀하면,

大屯山은 韓半島의 西南端에 位置하며 中生代 백악기에 분출된 화강반암(Granite Porphyry)을 主岩石으로 形成되었고 해발 200m의 하에서는 갈색 또는 적색의 규암(Quartzite)이 分布하고 있다. 이 지역은 小白山脈의 末端地域으로 大分조산운동(中生代 백악기말)시에 中國方向(北東—南西)으로 습곡되어 이루어진 山脈이며 大屯山은 이 山脈중에서 핵심이 되는 岩株나 또는 岩脈에 해당된다.

地形에 있어서 大屯山은 東北方向에 있는 두류산과 함께 화강반암의 핵심이 되는 岩株이며 固結時(冷却時)에 柱狀節理를 이루었거나 또는 塊岩으로 冷却되어 風化過程에서 독특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박리현상을 이룬것, 塊岩의 기계적 풍화에 의한 山地斜面에 岩石原(Felsenmeer, Blockmeer)을 형성한 것 등이 있어 殘丘(Monadnock)와 같은 山形을 나타내고 있고 만일 植物被覆이 없었다면 荒地(Badland)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大屯山の 植物相은 高度에 따른 植物分布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地形이 단조로운 관계로 植物群落에도 특수한 것이 없고 部分的으로 草地群落에 발달하였을 뿐이다.

山彙의 林相은 대부분 第2次林이며 山 중턱에 있는 느티나무(현지에서는 4年樹라고 부름)의 老木巨樹가 다만 과거의 林相을 證明한다.

植物區界는 韓國溫帶植物區의 南部인 동시에 韓日暖帶植物區의 北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溫帶分子系로는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줄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꽃싸리, 좁피나무(초피나무)와 같은 落葉濶葉樹가 우세하고, 暖帶分子로는 등백나무, 후박나무, 북가시나무, 자릅나무, 남오미자, 속악등 常綠濶葉樹와 비자나무와 같은 常綠針葉樹가 混生하고 있어 特段景觀을 이루고 있다.

鳥類相은 大興寺—大屯山—頭輪山 사이의 거리 약 11km에서 약 3시간 동안에 21種 105個體를 관찰하였고 그 중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등이 優占種이었다. 또한 大興寺—進入口 入口에 있는 山林保護所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약 50분 동안에 14種 78個體를 관찰하였으며 그중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 직박구리, 솔새, 어치의 순서로 優占種을 나타냈다.

결구 29種 393個體를 관찰하였고 파랑새, 피꼬리, 삼광조, 휘파람새등도 관찰되어 이들 種類는 이곳을 장식하여 주는 훌륭한 생물자원이 되고 있다.

昆蟲相은 量的으로는 별로 특기할만한 것이 없으나, 個體數에 비하여 種類數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체로 地域이 좁아 단조로운 昆蟲相을 나타내고 있으나 濟州島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種類別로 딱정벌레目に 속하는 개미붙이목의 1種이 夜間採集에서 다른 種類에 비하여 상당

海南大屯山綜合學術調查報告書

수 출현하였고, 낮에는 벌류가 비교적 다양하며 그중 대모벌과의 1種이 많았다. 이외에도 노린재과와 파리매과에 속하는 捕食性 昆蟲이 흔히 나타났다.

魚類相은 三山川과 九山川에서 8個 지점을 택하여 調查한 결과 채집된 總個體數는 702個體이며 이들은 9科 16屬 17種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채집은 못하였으나 주민의 말에 의하면 잉어, 송사리, 가물치 및 버들붕어가 서식하고 있어 도합 21種이 기록된다.

地域에 따라 갈거나, 붕어 그리고 버들치가 각각 優占種으로 나타났으며, 三山川과 九山川에서 뱀장어의 稚魚가 20萬個體 이상 포획되고 있으며, 漁城橋 嶺쪽 약 1km 지점의 三山川에서는 1m²당 0.2마리의 은어가 서식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 납출경이가 산출되고 피라미가 없는 것은 특기할만 하다.

大屯山의 고도에 따른 森林群落의 연속적 변화를 調查한 결과 동백나무와 가시목群落으로 시작하여 졸참나무, 서나무군락이 연결되며, 졸참나무가 계속적인 우세종이었다.

森林土壤의 PH는 4.8~5.7이었고, 토양유기물과 전질소의 함량은 각 林型에 따라 변화하며, 그중 편백林土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